

일본 소설 인기의 선두주자 오쿠다 히데오의 대중성 일상의 억압적 질서에 지친 이들을 위로한다

글_강유정 문학평론가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그네》는 2006년 한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14주씩이나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2006년 말 잠정적인 판매 부수가 30만 부라니, 대략 그 위세는 알 만하다. 2007년에 들어서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2005년 번역 출간된 이 책이 무려 3년간이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서 빠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소설의 죽음이니 문자 세대의 쇠망이라는 말이 유명처럼 떠도는 2000년대, 일본 소설의 이러한 인기는 사뭇 신기하다 못해 우려스럽다.

일본 문학의 득세가 불러일으키는 우려는 국내 문학의 위축이라는 단순 논리와는 좀 다르다. 실상 공지영은 작년 한 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사랑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작품을 모두 30만 부 이상 판매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전히 베스트셀러 1위는 국내 대중 작가의 소설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읽히고 있는 책들이 대개 융숭 깊은 사유가 아닌 예민한 정서를 두드리는 가벼운 책들이라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들은 2000년대 현대 독자 대중들의 구미에 가장 잘 맞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이 지닌 어떤 면이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 ‘오쿠다 히데오’라는 검색어를 쳐보면 재미있는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오쿠다 히데오’라는 이름과 그의 저작은 블로그 형태를 지닌 개인 홈페이지 안에 주로 ‘포스팅’이 되어 있다. 포스팅이란 인터넷 뉴스 검색이나 타인의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꼭지나 내용을 옮겨 오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옮겨 오는 것과 다른 점은 우리가 책에 포스트 잇을 붙이듯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포스팅의 내용이다. 포스팅된 내용들은 대개 오쿠다 히데오의 책을 읽고 난 이후의 감상문이라기보다 오쿠다 히데오의 책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즉, 타인의 독서 스케줄을 옮겨와 나의 스케줄 속에 기입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오쿠다 히데오의 이름은 그의 소설이 어떻게 유통되고, 유명세를 얻고, 소비되는지 그 단면을 잘 보여준다. 실상,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은 어렵다거나 진지하다기 보다 이채롭고 가볍다. 이는 그의 문체가 아주 가볍다는 사실에도 드러난다. 아니 엄밀히 말해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에는 ‘문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다음과 같은 몇몇 구절들을 본다면 이 사실은 분명해진다.

“야, 이 새끼야, 말이 틀리잖아. 주사는 안 놓는다고 어제 그랬지?”

세이지는 이마에 시퍼런 힘줄을 세우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심장이 쿵쿵거리며 맥박이 빨라졌다.

“그건 거짓말이지롱, 후훗”이라부가 신이 나서 지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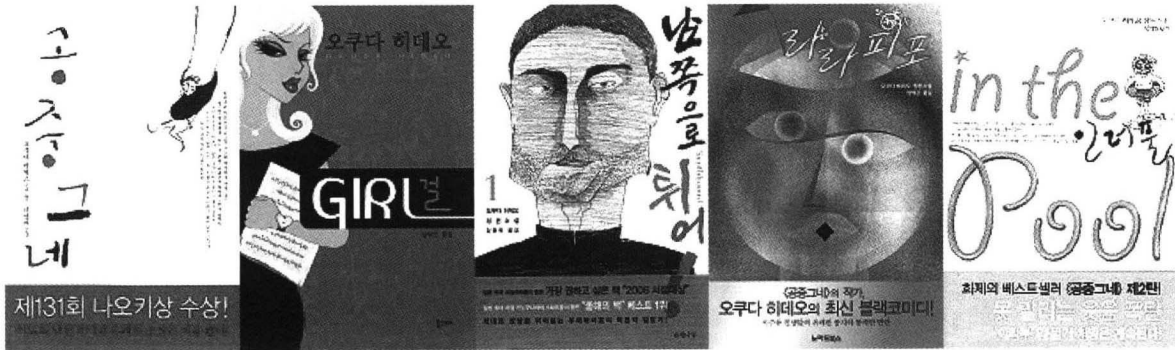
“까불지 마. 당신은 의사도 아냐.” 갈라진 목소리로 항의했다.

“당신이나 나나 피차일반이지. 그쪽도 정직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 쿵쿵.”

- 《공중그네》, 이영미 역, 은행나무, 2005, p.26 -

번역 과정에서 생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소설의 구절 구절들은 우리가 문학이라고 예상하는 소설의 일부와

오쿠타 히데오(奥田英郎)는 1959년 일본 기후현에서 태어났다. 기획자, 잡지 편집자, 카피라이터, 구성작가 등으로 일하다가 1997년 《우람바나의 숲》으로 소설가로 데뷔했다. 2002년(병해)로 제4회 오이부 하루히코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공중그네》로 제13회 나오키상을 수상했다. 《인 더 풀》(미돈나)(최악)(동경이야기) 등이 있다.



정확하게 결부되지는 않는다. “새끼”와 같은 비속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를테면, 심장은 “쿵쿵거리며” 뛰고 목소리는 “갈라”진다. 즉,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긴장으로 인해 흐트러지는 상황에 대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는 감정의 긴장 상태를 말하기 위해 하나라도 신선한 표현을 길어내고자 하는 문학 수업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즉, 오쿠타 히데오는 애초부터 언어를 탐구하는 작가가 아니라 뜻이다. ‘문체’가 없이 일상어를 사용하는 면면은 “후훗”이나 “크큭”과 같은 의성어에서도 드러난다. 마치 휴대 전화 문자 송신이나 인터넷 채팅 용어처럼 감정 상태를 이모티콘화하는 셈이다. 이러한 면면은 지면의 80% 이상이 대화로 채워진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공중그네》의 책 어떤 면을 펼쳐보더라도 ‘따옴표’로 표시된 대화들은 지문보다 많다. 마치, 시나리오나 희곡처럼 오쿠타 히데오의 소설은 심리상태나 정서적 내면, 사유를 드러내는 지문이 아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원작의 뉘앙스와 번역본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한국 독자들이 번역된 《공중그네》를 읽는다는 것이고, 이 번역된 뉘앙스가 한국의 대중 독자들 30만 명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오쿠타 히데오의 소설은 소설이라기보다 눈으로 읽는 시트콤을 연상케 한다. 즉, 그의 소설은 문체나 사유가 아닌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 독자에게 다가간다. 조폭인 한 남자는 날카로운 물건을 공포스러워 하고, 의사인 한 남자는 권위자이자 직장 상사이기도 한 장인의 가발을 벗기고 싶어 한다. 의사이자 주인공인 이사부는 뜬금없이 공중그네를 하고 싶어 하며, 이름난 소설가는 자신이 쓴 소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말해, 오쿠타 히데오의 《공중그네》를 지탱하는 원리는 역설이자 아이러니이다.

중요한 것은 그 역설이나 아이러니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내재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특수한 상황인 듯하지만 실상 《공중그네》가 묘사하는 심리적 정황은 매우 일반적인 양상에 가깝다. 동시대의 한국 독자들이 매료당한 부분은 바로 이 점일 것임에 분명하다. 지하철에서, 반신욕을 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일상에 지친 대중 독자들은 가벼운 필체와 문체 속에서 자신의 한 단면과 만난다. 일상의 억압적 질서에 지친 그들에게 잠시의 위안이 되는 셈이다. 이는 오쿠타 히데오의 다른 소설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에 가깝다. 30대 여성의 삶을 그린 《겉》도 그렇고, 개성 뚜렷한 5명의 가족 이야기를 그린 《남쪽으로 튀어》도 그렇다.

엄밀히 말해, 소설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다. 선별된 언어와 문장, 문체를 접하는 것은 독자에게 역시도 그 만큼의 긴장을 요구한다. 이는 준열한 사유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파고드는 집요함은 실상 삶 자체의 근간을 흔든다. 문학은 이렇게 어렵고 아프지만, 실상 그것이 곧 문학의 진실이고 삶의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소설은 문학의 고유한 정의에서는 벗어난다. 하지만 대중 독자들은 소설에서 약간의 교양과 재미를 원한다. 약간의 교양과 재미에 있어, 오쿠타 히데오의 소설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임엔 분명하다. ☞